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에 관한 고찰: 1994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시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 윤 숙*
문 성 욱**

창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의 경제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창업의 수, 창업 후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업률, 생존율 및 생존 기업들에 의한 고용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 창업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창업 후 생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로 창업률,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률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생존한 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높았고, 자치구에 소재하는 법인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고용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이 높아지면 생계형 창업이 급격히 증가한다. 생계형 창업은 음식점 및 도소매업과 같이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생계형 창업의 증가는 지역의 신규 수요 창출보다는 지역 내 기업 간 경쟁 강도를 강화시켜, 창업 기업의 수익률 감소로 인한 생존을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생계형 창업의 수 증가는 지역의 고용 안정 및 고용 성장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법인 기업의 수, 창업률, 고용 성장률 간 상관관계가 높다. 이는 산업집적(cluster) 지구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창업 활동과 고용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회형 창업이 산업집적 단지의 존재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창업, 생존율, 고용 증가, 지역 특성, 기회형 창업, 생계형 창업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국의 사업체 수는 367만 9,000개로 1년 전보다 2.1%(7만 6,000개) 증가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은 1998년 2,042개에서 2014년 말 29,910개로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창업이 증가한 데에는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요인으로서 성장 동력 회복과 고용 창출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창업 지원 정책이 창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적 요인으로서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과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자가 고용(self-employed)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창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

논문접수일: 2015. 09. 30. 1차 수정본 접수일: 2016. 01. 14. 2차 수정본 접수일: 2016. 01. 24. 게재확정일: 2016. 02. 16.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연구교수(yslee9728@gmail.com), 제1저자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seongwuk@sogang.ac.kr), 교신저자

만, 창업한 기업들의 생존율은 높지 않다. 2015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창업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약 41%로에 불과하며 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룩셈부르크 66.8%, 호주 62.8%, 이스라엘 55.4%, 미국 57.6%, 이탈리아 54.8%). 또한 한국 신생 기업의 75%는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을 했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약 8%에 불과하다(이강봉, 2015).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창업 후 생존율과 창업 기업들에 의한 고용 성장률을 고려해야 한다. 창업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들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업을 통하여 기대했던 경제성장 및 고용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창업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창업의 질적 향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업 후 성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기업들을 많이 배출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때 창업 기업의 안정적 생존과 고용 창출 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업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이 동시에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Shane(2009)은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좋은 정책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창업은 기술 기반이나 혁신적인 시도가 없고,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높는데, 이러한 유형의 창업 증가가 정부가 창업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Guzman과 Stern(2014)은 창업의 수와 창업의 질이 서로 관련이 없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군(county) 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창업한 기업의 성공 확률(IPO

혹은 인수·합병)을 측정하여 창업 질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라도 창업의 질적 지표는 창업 수에 비례하지 않았다. 즉 특정 지역에서 창업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기업도 많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활발한 창업이 경제성장이거나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데는 제약 사항들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창업의 양적 팽창 보다는 창업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성장과 고용 증가가 가능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창업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제 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업의 수, 생존율, 고용 성장률 등과 같은 창업의 질을 고찰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이 세 가지 창업 생태계를 측정한 지표들의 차이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창업의 특성과 현황을 창업의 양적 및 질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지역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창업 관련 요인들을 식별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정부에 의해 시작된 '전국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수도인 서울 지역의 창업률, 생존율 및 고용 성장 추이를 시 단위와 구 단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창업의 양적(창업 수) 및 질적(생존율 및 고용 성장) 현황을 파악하고, 창업의 양적 및 질적 현황이 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한 구조적 요인들을 각 행정구별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지역 창업률, 창업 기업의 생존율 및 이들에 의한 고용 성장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은 지역(서울

지역의 구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창업 후 생존율과 고용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창업 후 생존율 및 고용 성장률 등과 같은 창업의 질적 지표를 주요 분석 변수들로 제시하여 향후 창업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문헌연구에서는 창업, 경제성장 및 고용 간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 문헌들을 정리하며 특히 지역적 특성이 창업률, 창업 후 생존율,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한다. III.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분석 결과는 IV에서, 결론 및 시사점은 V에서 각각 논의된다.

II. 문헌 연구

2.1 창업과 지역 경제와의 관계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기업 위주의 규모 경제를 강조하던 관리형 경제(Managed Economy)에서 창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가적 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Audretsch & Thurik, 2010). 이는 최근 생산 방식의 변화와 ICT 산업의 발달 그리고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의 다양화 등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경제성장의 둔화되고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압력 하에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Praag & Versloot, 2007; Decker et al., 2014; Schoar, 2010). 1942년에 Schumpeter는 기업이 정신을 지닌 창업가들의 혁신 활동에 의해 신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며, 시장이 재편되어 경제가 동태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창업가들의 변혁적인 역할(Transformative Role)에 관해 언급하며 창업가는 혁신의 주체라고 규정했다(이장우 외, 2015). 그는 창업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이로 인한 기존 산업 및 기업의 쇠퇴 등의 경제적 구조 개편 및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의 주요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Schumpeter(1942)에 의하면 경제성장 및 역동성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기존 산업의 쇠퇴 그리고 산업 안에 새로운 기업의 출현 및 퇴출 등과 같은 활동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창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역동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들은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 공정 혁신에 치중하는 반면,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노리는 성향이 강하고, 고용 창출 및 신사업 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양미, 2002; 옥지호, 2014).

창업이 지역 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실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Glaeser et al.(1991)는 미국 여러 도시들에서 창업 기업의 증가가 지역의 고용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하였고, Rosenthal과 Strange(2003, 2010) 역시 창업 기업이 지역의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미국의 경우, 창업 기업들이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ecker et al., 2014).

창업과 고용 증가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것보다 더 복잡하다. 모든 창업이 고용 성장 및 혁신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Schoar(2010)는 창업을 생계형 창업(Subsistence Entrepreneurship)과 기회형 창업(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hip)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창업 유형의 경제적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생계형 창업은 창업가의 생계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창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계형 창업가들은 기업 운영을 통한 성장 및 혁신에는 큰 관심이 없다. 반면, 기회형 창업은 생계유지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창업을 의미한다. 기회형 창업가들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한다. 창업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두 가지 창업 유형의 비율에 달려있으며, 생계형 창업보다 기회형 창업이 더 활발히 발생할 때 비로소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choar, 2010).

Hurst et al.(2011)는 소규모 사업 중에 고용 성장 위주인 기업의 수가 매우 적으며, 성장하는 기업과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의 차이는 창업자의 기업 설립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창업주들은 자유로운 시간 활용 및 경직된 고용 회피 목적으로 창업을 선택하며,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창업은 경제성장의 동력 및 고용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창업가의 창업 의도에 따른 생계형 창업 혹은 기회형 창업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

2.2 지역 특성과 창업의 수, 생존율과 고용 성장

창업은 모든 산업이나 지역에 걸쳐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Glaeser et al.(2015)은 지역마다 창

업 분포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 정책 및 산업 구조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Malecki (1997)는 창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으로 산업구조(Industrial structure),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지역의 창업 분위기(Entrepreneurial Climate)를 제시했다.

창업 입지에 대한 선택은 창업가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으로 볼 수 있는데(Delmar & Shane, 2003), 지역 특성이 창업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창업가들은 자신이 익숙한 곳에서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정보에 익숙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자들은 배태 조직(기존 근무지)이 있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익숙한 지역에서의 창업은 필요한 인력, 자금 및 유·무형적 자원의 탐색 비용과 시간에 대한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orensen & Sorensen, 2003).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기존 직장 등 연고지 근처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실리콘 밸리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들은 주로 실리콘 밸리 소재 모기업들에서 분사(Spin Off)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gers & Larsen, 1984).

둘째, 특정 산업이 집적된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 산업의 집적은 중간 투입재, 공급 상의 규모 경제,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가, 지식과 정보의 접근 용이성 등의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Marshall, 1920). 기술 변화에 따라 토지, 자본 중심에서 인적·제도적·사회적 요인들 중심으로 집적 효과의 원인들이 간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해 가고 있다. 사람들은 IT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집적 현상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지만,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 장려 정책 및 클러스터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지역 집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도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기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신생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수와 다양성이 떨어지고 또 생존율도 낮은 경향이 있다(Chinitz, 1961; Glaeser et al., 2015). 또한 대기업이 중심의 산업 구조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창업보다는 대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하청업체 혹은 공급업체 역할을 하는 창업 및 분사(Spin Off)가 일어나는 경향이 높다.

이처럼 지역마다 창업이 활발한 분야가 다르고 창업 후 생존율과 고용 성장이 상이한 것은 창업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적 공간 및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Chinitz, 1961). Lee 등(2004)은 창업 및 창업 성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창업가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창업은 해당 지역의 유·무형적 속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적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지역의 창의성(Creativity)과 다양성(Diversity)이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Reynolds 등(1995)은 지역의 실업률, 인구밀도, 산업단지,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이 창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지역의 산업 Mix가 창업 기업의 입지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Malecki, 1997), 지역 산업의 불안정성은 새로운 기업들의 영입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llinger et al., 1983). 즉, 지역별로 인프라, 인구 분포 및 산업 분포 등이 동일하지 않으며, 이러

한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자원의 편차는 창업 기업의 위치 선정과 창업 후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영향을 준다.

한국에서 수행된 창업 혹은 Start-up에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적 특성과 창업 활동 및 창업 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업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업의 수, 생존율, 고용 성장의 관계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III.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1 자료 수집 및 자료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조사 데이터¹⁾를 사용했다. 사업체 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1994년부터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사업체 조사는 전수조사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림(개인 경영), 어업(개인 경영), 국방,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을 제외한 전사업체(약 330만 개)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외의 법인, 비법인단체인 협회 및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업체 조사는 단독 사업체, 분사 본점 및 지사와 영업소를 별도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있어 기업 단위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보다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체가 입지해 있는 지역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단위는 사업체다.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를 일컫는다. 사업체의 판단에 영리·비영리,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가 없다. 사업체에는 회사(본사·점, 지사·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상점, 식당, 병·의원, 관공서, 학교, 주점, 장고, 물류센터, 종교 단체, 신문사, 방송국,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경제 및 산업을 더 상세하게 고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체 조사 항목은 사업체 명, 대표자 명, 소재지,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장 변동,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의 공통 항목과 각 시·도 자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 조사는 각 읍·면·동 직원 및 임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사업체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의 서울시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공공에 오픈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업체 명과 대표자 명을 제외하고 서울의 각 지역에 분포하는 사업체들의 지역(동 단위), 조직 형태, 고용 인원, 창립 연도,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의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각 연도의 데이터에는 조사 연도에 새로 설립된 기업들 외에도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994년 사업자 수는 약 65만 개로 조사되었고, 이후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78만 개의 사업체가 조사되었다. 1994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측치는 총 14,800,000여 개이다.

본 데이터는 정부에서 수행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이며, 서울시의 모든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였다는 점, 그리고 1994년부터 매년 수행되어 서울시 사업체 현황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 자료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창업, 산업 및 지역 경제 연구에 중요한 데이터라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각 연도별, 행정 지역별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 관련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서울시의 홈페이지, 서울연구원 보고서 및 통계자료, 정부의 통계자료, 각 행정구의 홈페이지들을 참고했다.

3.2 분석 방법과 사용 변수

본 연구의 목표는 지역별 및 연도별 창업 기업의 수와 창업 기업들의 3년 후 생존율과 고용 성장률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은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시 및 25개 구의 연도별 창업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률을 측정하였다.

서울시를 구성하는 25개 구는 각각 소득, 편의시설, 복지 및 산업화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 구를 중심으로 행정적인 분화가 이루어져 있어, 특정 구에 거주한다는 것은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및 사회 하부구조를 공동으로 영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진원과 한민경, 2007). 따라서 행정구역의 단위인 구를 공간적 특성과 정책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 코드(구 단위), 창립 연도,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종업원 수의 변수를 사용해 분석했다. 또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기간 동안 KSIC 코드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SIC 8차를 기준으로 조사된 데이터들을 KSIC 9차 개정본을 기준으로 변경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데이터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일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창업 연도를 기준으로 창업 연도에 따른 집단(Cohort)을 구분하고,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에 생겨난 사업체들의 창업의 수와 함께 창업 3년 후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의 변화량을 주요 변수로 분석했다. 또한 이 주요 세 변수는 각각 서울 전체와 행정구역인 구 단위로 구분해 사용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과 변수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구별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 외에 서울

〈표 1〉 변수의 정의

변수	설명
창업 수	매년도 설립된 사업체의 수(창립 연도로 구분)
창업 3년 후 생존율	$\frac{t\text{년도에 창업한 기업들 중에 } t+3\text{년에 생존해 있는 기업의 수}}{\text{창업기업의 수}_t}$
창업 5년 후 생존율	$\frac{t\text{년도에 창업한 기업들 중에 } t+5\text{년에 생존해 있는 기업의 수}}{\text{창업기업의 수}_t}$
창업 3년간 생존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 변화	$t\text{연도 창업기업들의 } t+3\text{년도의 평균 종업원 수} - t\text{연도 창업기업들의 평균 종업원 수}$
창업 5년간 생존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 변화	$t\text{연도 창업기업들의 } t+5\text{년도의 평균 종업원 수} - t\text{연도 창업기업들의 평균 종업원 수}$
창업 기업 총 종업원 수	매년도 설립된 사업체의 총 종업원 수
창업 3년 후 총 종업원 수 변화	창업 3년 후 생존한 기업들의 총 종업원 수 - 창업 기업 총 종업원 수
창업 5년 후 총 종업원 수 변화	창업 5년 후 생존한 기업들의 총 종업원 수 - 창업 기업 총 종업원 수
실업률	서울시 연간 실업률
법인 수	구 별 법인 수

시 실업률과 각 구에 존재하는 법인의 수를 추가하였다. 법인 수의 경우 법인 기업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서 지역의 고용 창출에 많이 기여하는 기업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Guzman & Stern, 2014). 본 연구는 법인 수를 활용하여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의 창업률,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이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적게 분포하는 지역의 그것들과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서울시의 창업의 수와 생존 및 고용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래프를 통해 시간에 따른 각 요인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서울 지역을 구성하는 25개의 구 단위로 데이터를 세분화해 각 구별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과의 연관성을 상관관계 분석과 산점도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IV. 사례 분석 결과

4.1 서울시의 창업, 생존율, 고용 성장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다. 서울의 면적은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한국 전체인구의 약 5분의 1인 약 1,000만 명이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울에서 한국 GDP의 21%가 창출되고 있고, 금융의 5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사업체의 약 23%인 73만 개 업체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²⁾

〈표 2〉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창업의 수, 3년 및 5년 후 창업 기업의 생존율 및 고용 증감의 평균값을 보여 준다. 서울에서는 매년도 약 10만여 개의 사업체가 생겨나고, 새로 생겨난 사업체의 총 고용 인원은 평균적으로 약 3.3명이다. 이러한 신생 사업체들은 연간 약 34만 개의 일

2) http://www.seoul.go.kr/v2012/seoul/review/general/mean_brandseoul.html에 서울시 발표 자료 인용

자리를 창출했다.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약 61%로 나타났고, 3년 후 생존한 기업들의 평균 종업원 수는 약 4.1명으로, 창업 당시 보다 약 0.7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후 기업의 생존율은 약 43%로 떨어졌고,³⁾ 생존한 기업의 규모를 살펴볼 때 종업원 수는 창업 시 3.3명에서 약 1.15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에 창업한 기업들이 창출한 고용 규모와 창업 5년 후 생존한 기업들이 창출한 총고용 규모를 비교해 보면, 기업의 낮은 생존율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가 생존한 기업이 성장해 창출한 일자리보다 많아서 창업 당시보다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서울의 평균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

지표	수치
평균 창업 사업체 수 (1994년~2013년)	102,679 명
창업 시 사업체 당 평균 고용인수 (1994년~2013년)	3.3명
창업사업체들의 총 종업원 수 (1994년~2013년)	344,065명
창업 3년 후 사업체의 평균 생존율 (1994년~2010년)	약 61%
창업 후 3년 간 생존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 증가 (1994년~2010년)	0.74명
창업 3년 후 총 종업원 수 변화 (1994년~2010년)	-95,530명
창업 5년 후 평균 생존율 (1994년~2008년)	약 43%
창업 후 5년 간 생존 업체당 평균 고용인 수 증가 (1994년~2008년)	1.15명
창업 5년 후 총 종업원 수 변화 (1994년~2008년)	-153,871명

〈표 3〉 서울의 창업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과의 상관관계

	(1)	(2)	(3)	(4)
창업 수 (1)	1.00			
실업률 (2)	0.51*	1.00		
생존율 (3)	-0.69**	-0.47	1.00	
고용 증가(4)	0.05	-0.38	-0.45 ⁺	1.00

p⁺ < 0.1, p* < 0.05, p** < 0.01

이러한 평균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들의 평균 생존율이 낮은 편이고 또한 생존한 기업들의 고용 성장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한 생존율이 비교적 낮아 창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폐업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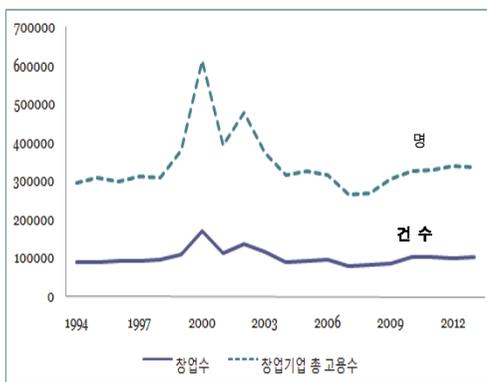
〈표 3〉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창업의 수, 실업률, 생존율 및 고용 성장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표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률과 창업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p=0.51^*$, $p < 0.05$). 이는 서울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창업의 수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실업률이 자영업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창업의 수와 생존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69^{**}$, $p < 0.01$). 이는 창업의 수가 증가한 해의 Cohort경우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창업의 수가 적었던 Cohort경우의 창업 3년 후 생존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생존율이 낮을수록 고용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45^*$, $p < 0.1$).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외에 협회와 관공서 등의 생존율이 높은 사업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각 년도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즉, 창업의 수가 많았던 해의 Cohort들이 생존율은 낮았지만, 이때 태어나서 생존한 기업들의 고용 성장은 다른 해의 Cohort들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창업의 수와 고용 증가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변수 간에 단순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아니라 변수들 간에 연관성을 기술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2〉과 〈그림 3〉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1〉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지역의 창업의 수와 창업 기업들에 의해 창출된 총 고용 규모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서울시의 창업은 2000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0년대 및 2000년대를 통해 가장 높은 수치이고, 2000년 이후 창업의 수는 다시 급감했다. 이후 2006년 이후 창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들어 창업의 수가 비이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1997년에 있었던 한국의 경제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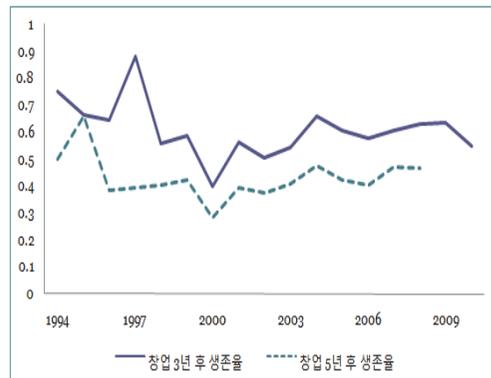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창업과 총고용 규모 추이

1997년 경제 위기 당시, 한국에서 수많은 기업이 사라졌으며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였다. 높은 실업률

과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 및 창업을 선택했고,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창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2006년 이후부터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높은 청년 실업과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과 30~40대 퇴직한 인구들이 자영업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2〉는 창업 기업들의 창업 3년 후 및 5년 후의 생존율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이를 살펴보면, 2000년 전후에 창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시기에 기업들의 생존율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1997년 이전에 생긴 기업들은 비교적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2000년대 전후의 고실업이라는 사회적 환경 하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택한 것과 달리, 1997년 이전은 벤처기업 붐 등과 같이 경기가 좋았고 이때 경쟁력 있는 창업자들에 의한 기회형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 창업 기업의 생존율 변화 추이

〈그림 3〉은 창업 기업들의 창업 3년 후 및 5년 후 평균 고용인 증가를 보여 준다. 특히 1997년, 1998년에 생긴 기업들의 고용 성장이 다른 연도에 생긴



〈그림 3〉 생존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 증가

기업들과 대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전후로 IMF 위기 속에 생겨난 기업들이 생존율은 높지 않았지만, 생존한 기업들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03년 이후 생존한 기업들의 평균 고용인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996년과 1997년에 창업한 기업들은 창업 5년 후 고용 성장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앞서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1996년과 1997년 창업의 질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았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는 초고

속인터넷 보급과 인터넷에 기반을 둔 닷컴 기업 및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들의 창업이 활성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백훈, 2012).

〈표 4〉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의거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창업이 발생한 산업과 각 산업에서의 기업 생존율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 관련 창업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전체 창업의 약 23%). 두 번째로 많은 창업이 일어나는 산업은 소매업이며(전체 창업의 약 19.94%) 3위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차지했다(전체 창업의 약 9.6%). 또한 상위 2개 산업에서의 창업(음식점과 주점업, 소매업)이 전체 창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산업의 점유율은 약 65%에 달해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창업은 산업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개 산업에서 창업한 기업들의 생존율이 전체 평균인 4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빈도가 가장 높은 음식점과 주점업은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약 2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창업의 빈도가 높은 소매업 분야도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약 38%로 매우 낮은

〈표 4〉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따른 창업의 수와 생존율

산업 중분류	총 창업 사업체 수 (1994-2013)	점유율	연간 평균 창업 수	5년 후 생존율
음식점 및 주점업	401,292	23.01%	23,605	28.80%
소매업	347,680	19.94%	20,451	37.57%
도매 및 상품중개업	168,079	9.64%	9,887	54.5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26,238	7.24%	7,425	76.78%
개인 서비스업	85,725	4.92%	5,042	43.96%
교육 서비스업	74,737	4.29%	4,396	40.00%
부동산업	67,037	3.84%	3,943	43.16%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66,437	3.81%	3,908	28.1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33,100	1.90%	1,947	45.96%
전문직별 공사업	32,636	1.87%	1,919	51.52%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에서 새로 생겨난 음식점 10곳 가운데 약 3개 업체만이 5년 후에도 영업을 한다는 것이고, 소매업의 경우 창업 5년 후 총 10개 중 6곳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점과 소매업 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이 많이 일어나나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생존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KB경제정보리포트, 2012). 반면,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분야는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약 77%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운송 산업은 지난 20년간 수요가 급성장한 산업으로(김창범, 2007), 산업의 성장과 함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도 이상의 수익성을 냈던 것으로 판단된다.

4.2 구별 창업, 생존율, 고용 성장과의 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각 구별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창업의 수, 창업 3년 후 생존율, 창업 3년 후 고용 증가의 연관성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구별 창업의 수, 생존율, 고용 성장에 따라 산점도를 그려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림 4〉는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25개 행정자치구의 위치를 보여 주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25개의 구들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서울연구원에서는 인구,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부분별 지표에 의거해 25개 자치구별 특성을 도출했다(맹다미, 2009).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업경제 측면에서 산업·경제 중심지가 위치한 자치구(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와 중심지가 위치하지 않은 자치구(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구로구, 은평구)들 간에 사업체 밀도와 경제

적 수준 및 재정 자립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산업·경제 중심지가 위치한 구는 사업체 수가 많고 경제적 수준과 재정 자립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www.seoul.go.kr/v2012/seoul/seoul.html

〈그림 4〉 서울을 구성하는 25개 구

서울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약 400만 개의 일자리 또한 25개의 자치구들에 편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강남구, 중구,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 상위 5개 구의 일자리 수는 약 180만 개에 이르며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4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특정 구들에서 산업적 클러스터(Cluster)가 강력한 밀집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⁴⁾

〈표 5〉는 창업 수, 생존율, 고용성장, 및 법인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창업의 수와 창업 후 생존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창업의 수와 생존한 기업의 고용 증가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51^{**}$, $p < 0.01$). 즉 창업의 수가 증가하면 생존한 기업들의 평균 고용 증가

4) 서울타임스, www.seoultimes.net/news/article View.html? idxno=13526, 2011년 9월 27일 보도자료에서 인용.

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창업의 저변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창업의 질이 높은 창업의 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창업의 수와 생존율 간에는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생존율은 창업의 수가 아닌 다른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창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창업이 활성화되면 비울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만, 기업이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과 경쟁 요인으로 인해 상이한 생존율을 나타낼 것이다.

〈표 5〉 창업 수, 생존율, 고용 성장 및 법인 수와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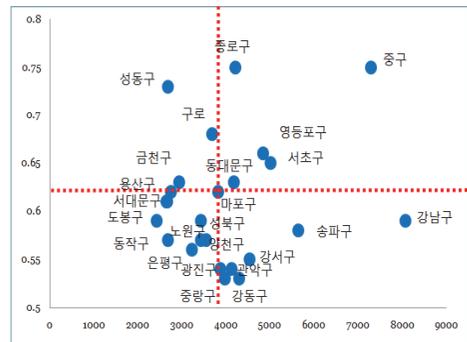
	(1)	(2)	(3)	(4)
창업 수 (1)	1.00			
생존율 (2)	0.16	1.00		
고용성장 (3)	0.51**	0.19	1.00	
법인 수 (3)	0.77*	0.32	0.89**	1.00

p+ < 0.1, p* < 0.05, p** < 0.01

반면, 구에 존재하는 법인 수와 창업의 수 그리고 고용 성장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77^{**}$, $p < 0.01$; $p=0.89^{**}$, $p < 0.01$). 지역에 법인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자영업(생계형 창업)이 아닌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기업(기회형 창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들은 주간 상주 인력 및 유동 인구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회형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는 곳에 더 많은 창업이 발생하고, 창업 후 고성장 기업들도 더 많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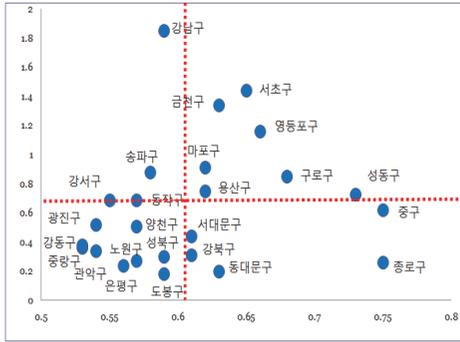
다음은 각 구별 창업의 수와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의 관계를 산점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산점도에 가로와 세로로 표시된 점선은 각 가로 및 세로 축 변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5〉는 각 구별 창업의 수와 생존율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이 그림에 의하면, 창업의 수가 많고 생존율이 높은 지역은 중구였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창업의 수는 많지만,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동구와 구로구는 창업의 수는 평균보다 적지만 생존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은평구, 동작구 등 대다수의 구들이 창업의 수와 상관없이 창업 후 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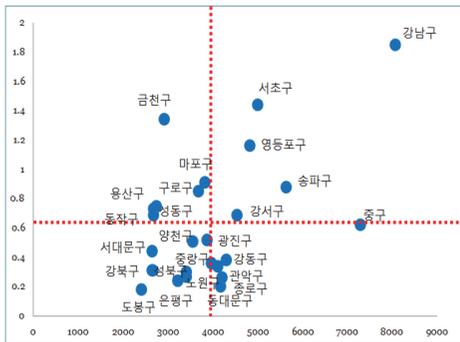
〈그림 5〉 구별 창업 수와 3년 후 생존율

〈그림 6〉은 생존율과 고용 성장과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림에 의하면, 생존율과 고용 성장은 관계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생존율이 높을수록 고용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등 생존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고용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에서는 생존율은 평균 이상이지만 고용 증가는 평균 이하로 낮게 분포하고 있어 생존율과 고용 성장에 있어 밀접한 선형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고용 성장이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평균 이하로 낮았고, 서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진 금천구(2015년 아파트 평균 시세 및 구의 재정 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는 고용 성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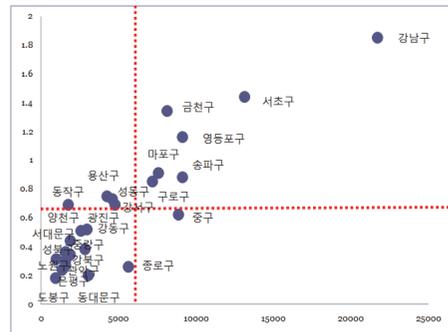
〈그림 6〉 구별 생존율과 고용 성장과의 관계

〈그림 7〉은 각 구별 창업의 수와 창업 3년 후 고용 증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창업의 수도 많고 또 종업원 수 증가도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천구는 창업의 수는 많지 않지만 고용 증가가 높은 구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양천구, 도봉구 등의 구는 창업의 수도 낮고 또 고용 증가도 평균 미만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와 강동구는 창업의 수는 평균 이상이지만 고용 증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창업의 수가 많은 지역의 고용 인원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구별 창업의 수와 창업 3년 후 평균 고용 증가

〈그림 8〉은 구별 법인 수와 생존 기업의 고용 성장과의 관계를 보여 준다. 사업체는 크게 법인과 개인 사업체로 구분된다. 개인 사업체는 주로 성장 의지가 없는 자영업과 관계가 깊지만, 법인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들로 알려져 있다(Guzman & Stern, 2014). 이 그림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존의 법인 수가 많은 지역에 창업한 기업들의 고용 증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설 법인 분포와도 일치한다. 2005~2009년 사이 서울에 창업한 법인 4만 3,522개의 기업 가운데 2만 2,024개 기업이 강남·중구·서초·영등포·종로구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창업 법인 수의 약 50.6%에 해당한다.⁵⁾ 이러한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법인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산업집적단지)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그림은 이러한 산업 및 기업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창업 기업들의 고용 성장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법인 분포가 많은 구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구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구별 법인 수와 생존 기업의 고용 성장

그러나 구로구와 금천구의 경우, 구의 경제 및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기업의

5) 서울타임즈, www.seoultimes.net/news/article View/html? idxno=13526, 2011년 9월 27일 보도

생존율과 고용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회형 창업 및 기존 기업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로·금천구 가산 디지털단지는 기존의 법인 분포 중심지인 종로·중구의 광화문~을지로 지역, 강남·서초구의 강남대로~테헤란로 지역,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과 함께 상장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구로·금천구는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는 곳으로, 과거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에서 최근에는 중소 규모의 기술 집약적 제조업체와 IT 제조 기업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구양미, 2002). 구로·금천구 외에 제조업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성동구 역시 생존율과 고용 증가가 높았다.⁶⁾ 이를 통해 창업 기업의 생존율 및 성장률 등의 창업의 질은 지역 경제 수준보다는 기존 법인 및 상장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기업들이 집적하고 있는 곳에서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창업의 수와 고용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생존율과 창업의 수 및 고용 성장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생존율과 고용 성장은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사업체들의 창업의 수와 생존율 및 고용 성장의 변화 추이와 이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패턴들이 관찰되었다.

첫째, 창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높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표

준산업분류 시 음식점과 소매업의 창업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이들 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평균 이하로 매우 낮았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점과 소매업 등의 창업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창업의 수 증가는 공급과잉과 경쟁 강도의 증가를 야기해 창업 후 기업 생존율을 현저히 낮춘다고 판단된다.

둘째, 창업 후 생존율과 고용 성장의 관계는 느슨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대다수의 창업이 생계형 창업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생계형 창업은 성장에 대한 의지가 낮아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많은 창업이 일어나지만, 창업 3년 후 또는 5년 후 생존한 기업의 고용 효과가 적다. 이는 생계형 창업의 수가 많아 고성장하는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생계형 창업이 기회형 창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콜롬비아의 경우 약 0.3%로 알려져 있음, Mondragón-Vélez, C., & Peña, X., 2010). 본 분석 데이터에는 생계형과 기회형 창업이 혼재되어 있어 창업의 질을 측정하는 생존율과 고용 성장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의 생존율과 고용 성장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창업 형태별 생존율과 고용 증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산업클러스터가 존재하거나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계형 창업이든 기회형 창업이든, 창업 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유동 인구가 많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생존한 기업들의 고용 증

6) <http://www.g-valley.org/> 홈페이지 참조

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기존 산업(고성장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기회형 창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넷째, 지역 경제의 수준과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존재하는 지역들의 창업 기업의 생존율과 고용 성장이 높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제조업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성동구 및 금천·구로구는 지역 경제 수준이 높지는 않았지만,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과 고용 성장이 다른 구 대비 높았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집적을 통해 완제품 생산을 위한 협업적 기업들(공급사슬)이 연쇄적으로 분포하고 또 동일 수요들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론된다. 또한 이 지역에 위치한 창업 기업들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들로, 새로운 창업 기업의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업체들 간에 경쟁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은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보다 외부경제 변화에 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같이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은 창업, 고용 및 생존율에 있어 경기 변동 등 외부경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동구 및 구로·금천구는 외부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의 창업을 통한 고용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수뿐 아니라 생존율과 고용 성장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창업의 수가 많지만 실패율이 지나치게 높아 생존과 고용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창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은 기존의 기술

기반 혹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을 지정하거나 혹은 특정 산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생 기업들은 기존의 전통적 산업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고성장하는 신생 기업들의 공통적 특성들을 식별하여 고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사전에 예측하고 지원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생계형 창업의 경우 생존율이 중요한 질적 지표가 된다. 생계형 창업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성장을 해 직업을 많이 창출하지는 않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계유지 및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존을 통해 고용의 안정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실업률과 창업과의 상관관계가 높고 또 자영업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3년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27.4%로서 이 일본(11.5%), 독일(11.2%), 미국(6.6%) 보다 월등히 높다.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은 외부경제 위기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든다. 이에 생계형 창업의 경우 성장 정책이 아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재분배 또는 사회안전망 확보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회형 창업은 생존율이 높지 않지만, 경제 성장 및 고용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창조적 파괴 혹은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생계형 창업과 달리, 기회형 창업은 기술과 수요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사업 초기에 겪는 실패율이 높다. 생계형 창업은 창업 후 바로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회형 창업은 창업 후 몇 년간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음의

수익성을 내다가 일정 시간 이후 비선형적으로 수익성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Aulet, 2014).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회형 창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물론 저변 확대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집적 지역(클러스터)은 기회형 혹은 생계형의 모든 창업에 있어 중요하다. 산업집적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에 있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대다수의 구들은 주거지 구역으로 산업집적 형성이 미흡한 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구별 경제성장률과 고용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별로 주거지 외에 산업 및 클러스터 등의 특화된 산업집적지 형성이 필요하다. 지역적 우위를 감안한 특정 산업들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 수와 생존율 그리고 고용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인들을 식별하고 또 독립 변수들과 창업의 수 그리고 생존율 및 고용 성장과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밝히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 혹은 기술적 연구로서 서울의 창업의 수, 생존율, 고용 성장의 추세와 변수 간에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향후, 이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 인구 등의 적절한 변수들을 통제 후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 사업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았다. 법인과 개인 사업은 사업의 지역적 분포 및 크기, 사업 분야 등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이에 법인과 개인 사업체를 분리해 법인 개인의 사업 형태에 따른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 그리고 지역의 산업 특징 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구로·금천구는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역의 생활수준 및 경제 수준은 높지 않다. 하지만 창업의 생존율과 고용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로·금천구가 왜 창업의 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상세한 고찰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양미(2002), "구로공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39(3), 1-48.
- 김진원, 한민경(2007), "서울 25 개 자치구의 '사회적 질차이,'" 대한통계협회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3, 39-81.
- 김창범(2007), "운송산업의 성장과 생산요소충격," 산업경제연구, 20(72), 1381-1393.
- 맹다미(2009), 지표로 본 서울시 도시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생활환경 격차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 백훈(2012), 역대 벤처기업 육성정책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옥지호(2014),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Korea Business Review*, 18(4), 297-323.
- 이강봉(2015), "죽음의 계곡' 생존 비율 더 높여야: 기술창업 실패자 위한 제도전 프로젝트 시급," *The Science times*, 2015년 9월 30일자 보도.
- 이장우, 김희천, 김동재(2015), "극한적 불확실성 (Extreme Uncertainty) 환경에서의 기업경영." *Korea Business Review*, 19(3), 151-171.
- KB 경제정보리포트(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Audretsch, D. B., and Thurik, A. R. (2001). "What's

- New about the New Economy? Sources of Growth in the Managed and Entrepreneurial Economi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0(1), 267-315.
- Aulet, B.(2013). *Disciplined Entrepreneurship: 24 Steps to a Successful Startup*. John Wiley & Sons.
- Bollinger, L., Hope, K., and Utterback, J. M.(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12(1), 1-14.
- Chinitz, B.(1961). "Contrasts in Agglomeration: New York and Pittsburg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2), 279-289.
- Decker, R., Haltiwanger, J., Jarmin, R., and Miranda, J.(2014).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US Job Creation and Economic Dynamism,"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3), 3-24.
- Delmar, F., and Shane, S.(2003). "Does Business Planning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2), 1165-1185.
- Glaeser, E. L., Kallal, H. D., Scheinkman, J. A., and Shleifer, A.(1991). "Growth in Cities (No. w378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laeser, E. L., Kerr, S. P., and Kerr, W. R.(2015). "Entrepreneurship and Urban Growth: An Empirical Assessment with Historical Min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7(2), 498-520.
- Guzman, J.and Stern, S.(2014) "Where is Silicon Valley?" *Science*, 347(6222), 606-609.
- Hurst, E. K., and Pugsley, B. W.(2011). "What do Small Businesses Do?,"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1(2), 73-118.
- Lee, S. Y., Florida, R., and Acs, Z.(2004).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a Regional Analysis of New Firm Formation," *Regional studies*, 38(8), 879-891.
- Malecki, E. J.(1997). "Entrepreneurs, Net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A Review of Recent Research," In: Katz, J.A., Borckhaus, R. (Eds.),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JAI Press, Greenwich.
- Marshall, A.(1920).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s., London: Macmillan.
- Mondragón-Vélez, C., and Peña, X.(2010). "Business Ownership and Self-Employment in Developing Economies: The Colombian Case." In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pp. 89-127).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ynolds, P. D., Miller, B., and Maki, W. R.(1995). "Explaining Regional Variation in Business Births and Deaths: US 1976 - 88," *Small Business Economics*, 7(5), 389-407.
- Rogers, E. M., and Larsen, J. K.(1984). *Silicon Valley Fever: Growth of High-Technology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Rosenthal, S. S., and Strange, W. C.(2003). "Geography, Industrial Organization, and Agglomer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2), 377-393.
- Rosenthal, S. S., and Strange, W. C.(2010). "Small Establishments/Big Effects: Agglomeratio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Agglomeration Economics* (pp. 277-30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oar, A.(2010). "The Divide between Subsistence and 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0(1), 57-81.
- Schumpeter, J. A.(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Shane, S.(2009). "Why Encouraging More People to become Entrepreneurs is Ba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33(2), 141-149.

- Sorensen, J. B., and Sorenson, O. (2003). "From Conception to Birth: Opportunity Percep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in Entrepreneurship," *Advances in Strategic Management*, 20, 89-118.
- Van Praag, C. M., and Versloot, P. H. (2007). "What is the Value of Entrepreneurship?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mall Business Economics*, 29(4), 351-382.

부록1 <산업 분류에 따른 창업 점유율과 생존율>

산업분류	창업 수 ('94-'13)	점유율	연간 평균 창업 수	5년 후 생존율
음식점 및 주점업	401,292	0.230	23,605	0.288
소매업; 자동차 제외	347,680	0.199	20,452	0.37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68,079	0.096	9,887	0.54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26,238	0.072	7,426	0.768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725	0.049	5,043	0.440
교육 서비스업	74,737	0.043	4,396	0.400
부동산업	67,037	0.038	3,943	0.43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6,437	0.038	3,908	0.28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3,100	0.019	1,947	0.460
전문직별 공사업	32,636	0.019	1,920	0.515
수리업	31,884	0.018	1,876	0.571
전문서비스업	22,368	0.013	1,316	0.602
보건업	21,568	0.012	1,269	0.639
임대업;부동산 제외	20,384	0.012	1,199	0.265
협회 및 단체	16,882	0.010	993	0.731
출판업	16,795	0.010	988	0.507
사업지원 서비스업	16,334	0.009	961	0.48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112	0.008	771	0.47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363	0.007	668	0.777
식료품 제조업	11,160	0.006	656	0.576
기타 제품 제조업	11,046	0.006	650	0.494
숙박업	11,002	0.006	647	0.79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9,359	0.005	551	0.50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9,255	0.005	544	0.64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8,951	0.005	527	0.7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533	0.005	502	0.71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416	0.005	495	0.617
종합 건설업	7,898	0.005	465	0.426
사회복지 서비스업	7,745	0.004	456	0.822

(계속)

산업분류	창업 수 ('94-'13)	점유율	연간 평균 창업 수	5년 후 생존율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75	0.004	434	0.62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72	0.004	392	0.410
금융업	6,136	0.004	361	0.59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777	0.003	340	0.43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32	0.003	320	0.574
전기장비 제조업	4,990	0.003	294	0.60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736	0.003	279	0.459
보험 및 연금업	4,423	0.003	260	0.39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714	0.002	218	0.549
도매 및 상품중개업	3,505	0.002	206	0.4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34	0.001	149	0.691
통신업	2,400	0.001	141	0.37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97	0.001	135	0.7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751	0.001	103	1.155
연구개발업	1,715	0.001	101	0.53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627	0.001	96	0.57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504	0.001	88	0.7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1	0.001	88	0.69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349	0.001	79	0.47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13	0.001	71	0.4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106	0.001	65	0.460
가구 제조업	1,012	0.001	60	0.78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New firm Creations, Survival rate and Job Creations: Based on Seoul Case from 1994 to 2013

Younsuk Lee* · Seongwuk Mo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requency of new firm creation, survival rate and job creation to evaluate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economic growth. We perform correlation analysis and present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Seoul Enterprise Survey data from 1994 to 2013, which has opened to public by Seoul government. On the level of Seoul, the frequency of new firm creati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gree of unemployment rate. On the county level, the frequency of new firm creation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job creation; the counties with more corporation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 employment growth. These results imply the followings: First, in Seoul the cases of subsistence enterprises have been more than those transformational enterprises. Subsistence enterprises have not been effective on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due to high death rate. Second, each count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new firm creations, survival rate and job creation of new firms. Transformational enterprises tend to start their business in the counties with high economic prosperity and business clusters.

Key Words: Entrepreneurship, Survival rate, Employment growth, Regional characteristics, Subsistence entrepreneurship, 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hip

* Research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Technology, Sogang University,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Technology, So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